"한 표라도 더"…선거운동 마지막 주말·휴일 총력전

3당 후보, 전략지역 맞춤 유세 지지·중도층 겨냥 메시지 주목

3당 대선 후보들이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과 휴일 총력전에 나선다. 전략 지역 '맞춤형 유세'를 통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겠다는 계산에서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등 3당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과 휴일 총력전에 나설 방침이다. 주말과 휴일이 지나면 본 투표일까지 단 하루 남는다.

공식 선거운동 이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투표 독려와 함께 '중도층 확장'에 방점이 찍힌 유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3표가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은 '123 캠페인'을 전개해 지지층을 물론이고 중도층을 겨냥한 투표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의 주말과 휴일 유세는 중도층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 맞춰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치러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 시즌2를 열 것"이라며 "꼭 투표해서 저들을 심판하자"고 했다.

제21대 대선 후보들 사전투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후보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청년들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인천 계양구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딸 김동주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여수시 주암마을회관에서 각각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내란을 옹호하고 극우 내란 세력과 뿌리를 같이하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우리나라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각각 강조했다.

이 후보를 추격중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막판 선거운동 전략은 '역전'에 맞춰졌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 이 후보가 지사를 지낸 경기도지역(시흥·안산·군포·안양) 유세 소식을 전하면서 '대역전의 서막'이란 표현을 썼다. 이 후보와 인연이 있는 지역 유세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예 재판을 하나도 안 받는다. 12개 죄목으로 받던 5개 재판을 올스톱시킬 것"이라며 '방탄 독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김 후보는 "국민이 졸고 있으면 방탄괴물 독재 국가로 가고, 국민이 깨어있으면 세계 최고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역전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를 놓지 않고 있다. 김재원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본 투표일 전까지 단일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보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직을 포기하고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3차 TV토론' 이후 무박 유세에 들어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여성 혐오' 발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서울=김현수 기자

전·현직 전남지사들, 이낙연에 "석고대죄를"

"전라도 정신 배신…강력 규탄"

허경만·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전라도 정신을 배신한 이낙연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전·현직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8일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전라도 정신은 우리 도민의 자랑이며 자긍심"이라며 "역대 전남지사들 또한 이런 전라도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 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욕에 눈이 멀어 민주주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했다"며 "정치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일이다"고 비판했다.

정근산 기자

이재명 "인사가 만사…유능·충직한 사람 뽑을 것"

"G7 참석 여부 정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인사 원칙과 관련해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혁신당 광주시당, 줍깅형 유세…"내란 쓰레기 투표로 청소"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12·3 내란 세력 심판과 헌전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9석9석 진짜 유세'를 다음달 2일까지 광주 전역에서 전개한다.

이번 유세는 지난 총선 당시 파란을 일으켰던 혁신당의 기호 9번을 활용해 구석구석 골목을 누비겠다는 실천 의지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 혁신의 기조가 담겼다.

혁신당은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투표를 독려하는 줍깅형 유세도 병행하고 있다.

광장과 헌법을 더럽힌 12월의 내란은 정치 쓰레기였고, 길바닥의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는 진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는 게 혁신당의 설명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갈 정치는 거리에서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될 때 시작된다"며 "광주의 골목골목을 왕진하듯 것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을 모아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을 반드시 열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소나무당과 함께 '헌정수호·내란청산·이재명 후보 지지 4당 선거연대 공동선언'을 주도하며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성사시켰다.

길용현 기자